

여객기 참사 후속지원 ‘온 힘’

익산시, 참사 당일 전담 공무원 파견해 유족 지원
국가에도기간 동안, 타종식 등 시 주관 행사 취소



지난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로 익산시민 2명이 희생된 것으로 파악되어 익산시는 피해 유족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익산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유족 지원에 나섰다. 30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전

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태국 방콕발 여객기 사고로 익산시민 2명이 희생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참사 당일 현장으로 전담 인력을 파견해 희생자 수습과 장례 절차 등 유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시민안전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사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국가 재난지원금 절차를 살피는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국가에도기간인 오는 1월 4일까지 예정돼 있던 제야 타종식과 해맞이 행사, 종무식, 시무식 등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할 계획이다.

시는 각 읍·면·동 등 각 관공서에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 애도 리본 패용을 통해 아픔을 함께한다는 방침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갑작스러운 참사로 우리 시민 두 분이 희생돼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며 “피해자 신원 확인부터 수습, 장례 등에 대한 통합 지원이 불편 없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유가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다이로움 ‘모든 시민 이롭게’

국비지원 전면 중단 속 정책 개편... 내년 발행액 4000억 결정
기존 할인을 10% 연중 유지·10% 추가 지급 가맹점 확대 등

익산 지역사랑상품권 ‘다이로움’이 내년에도 시민 모두가 이로운 정책을 펼쳐나간다.

익산시는 국비 지원이 전면 중단됨에도 내년 발행액을 전복 최대 규모인 4,000억 원으로 결정하고, 할인율을 기존과 동일하게 10%로 연중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다이로움 누적 발행액이 2조 원을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정착한 만큼, 안정적인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이로움’ 정책 개편을 진행한다.

우선 다이로움 결제금액의 10%를 추가 지급하는 정책지원 가맹점을 기존 77개소에서 다이로움 택시 어플과 치킨로드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특히 다이로움 택시 어플의 경우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교통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다이로움 정책에 대한 시민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정책지원 가맹점은 △지역서점 29개소 △착한가격업소 33개소 △청년

물 12개소 △글로벌문화관 3개소 등 77개소이며, 다이로움 택시 앱 결제는 내년 3월부터 정책지원이 적용된다.

아울러 시는 내년 3월부터 신규 ‘다이로움 플랫폼(앱)’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이용 편의성 증진에도 힘쓴다.

선불충전형 카드를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가맹점 승인·신청 절차 간소화, 위젯 기능 구현, 모바일 쿠폰형 상품권 발행 등 다이로움을 한층 고도화할 예정이다. 발행 수수료도 0.4%에서 0.24% 수준으로 낮춰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또한 다이로움이 시민의 주요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한정된 예산에서 더 많은 시민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내년 1월부터 월 구매 한도를 7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변경한다.

시는 다이로움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청 광장에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시민들의 조문 행렬 이어져... 유가족 슬픔 함께 나누며 희생자 추모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가 군산시청 광장에 설치된다.

군산시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을 기리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눈다.

군산시는 시청 앞 광장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조문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분향소는 12월 30일부터 운영되며, 조문객들은 헌화 및 분향을 통해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시민 애도 위한 합동분향소 운영

시청사 1층에 추모 공간 마련... 국가에도기간인 1월 4일까지

익산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합동분향소를 운영한다.

익산시는 30일 시청사 1층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하고 오후 5시부터 추모객을 맞는다.

합동분향소는 국가에도기간인 오는 1월 4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할 예정이

다. 누구나 조문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시는 분향소 운영과 함께 각 읍·면·동 등 각 관공서에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 애도 리본 패용을 통해 아픔을 함께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가에도기간 동안 시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를 모두 취소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2024년 특별교부세 149억원 확보

작년 대비 45억 증가

익산시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속도감 있는 지역현안 해결과 시책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익산시는 올해 특별교부세로 △재난사업 77억원 △시책사업 38억원 △현

안사업 34억원 등 총 149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45억원, 43.3%가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재난분야 주요 사업은 △익산천·목천포천·왕궁천 하천준설공사 17억원 △삼기면 화초7교 소교량 정비 6억원

△호우피해 복구복구 29억원 △중앙·하하로·송학·삼바레기·동원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13억 등이다.

시책사업은 모아복합센터 건립 36억원이 포함됐고, 현안사업으로 △신흥공원 보행로 설치 12억원 △하늘공원(장사시설) 리모델링 공사과 주차장 조성 8억원 △익산대교10길(대교3류 26호) 도로개설 공사 4억원 등을 확보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고품질 지역 쌀 판로 확대 앞장

대기업·수도권 학교급식 등에 24만 톤 공급... 3900억 경제 효과

익산시가 고품질의 지역 쌀을 간편식 시장에 공급하며 쌀 소비 감소 추세에 대응하고 판로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익산시는 2017년 ‘기업 맞춤형 익산 쌀’ 정책을 시작해 CJ(씨제이), SPC그룹(파리바게트), 본아이에프(본죽·본도시락), 농협식품 등 대기업과 수도권 학교급식에 익산 쌀을 공급하고 있다. 30일 익산시에 따르면 내년 계약물량을 포함해 총 24만 톤의 익산 쌀을 생산·공급하고, 이를 통해 3,900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은 익산시 전체 농지의 78%를 차지하는 작목이다. 생산량도 전국 지자체 중 4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지만,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익산 쌀의 판로 확보가 중요한 과제였다.

이에 시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와 생활패턴의 변화로 급성장하고 있는 간편식 시장에 주목했다. 실제 즉석밥 시장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CJ 햅쌀은 지난해 8,503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연매출 1조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시는 간편식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기업 맞춤형 익산 쌀 생산단지의 면적

을 2017년 1,500ha에서 매년 10% 이상 늘려가고 있다. 그 결과 익산은 2020년부터 CJ 햅쌀 원료곡 공급 지자체 1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본아이에프, 농협식품의 계약 면적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약 4,150ha 규모의 단지를 조성해 4만 200여 톤의 원료곡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익산시 전체 쌀 생산량의 37% 정도로, 내년 한 해 642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익산 친환경 쌀 판로 확대를 위해 수도권 학교급식에도 매진하고 있다. 탐마루 친환경 쌀이 서울시 노원구, 은평구, 성동구,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등의 급식에 공급되고 있다. 또한 국내 제빵업계 1위인 SPC그룹(파리바게트)에도 납품되고 있다.

시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동참하고자 기업 맞춤형 익산 쌀 생산단지에서 저탄소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인증면적은 1,101ha로 저탄소 인증 전국 2위를 달성했다.

시는 익산 쌀 생산·유통·마케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농협과 마곡종합처리장(RPC)의 관계자, 생산 농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보건소, 희귀질환자

교통비 최대 20만원 지원

군산시 보건소는 희귀질환 병원 진료로 발생한 교통비를 1인당 연 12회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산시는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산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 거주 희귀질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이다. 이들이 전북특별자치도 내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1회당 1만5,000원이 지원되며, 그 외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3만원이 지원된다.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통장사본,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을 준비하여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가족건강계(☎454-585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총무무진 활약 ‘빛나’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단장 정영미)이 재난 예방과 복구지원 활동의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동시에 받았다.

30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 예방과 복구 활동 지원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행정안전부 평가 전국 5위(호남권 1위), 전북특별자치도 평가 1위를 차지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지난 8~9월 유례없는 폭염 상황에서 무더위쉼터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 활동을 펼쳤다.

또한 지난 7월에는 모든 단원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지역을 찾아 복구활동에 발 벗고 나서며 지역 주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했다.

정영미 단장은 “이번 수상은 언제 어디서나 활약하는 단위들의 헌신과 익산시의 굳건한 협조체계를 통해 얻은 값진 성과”라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